

朱子學과 退溪學의 同異**

—朱子和 退溪의 理學思想을 중심으로—

梁 承 武*

● 目 次 ●

- | | |
|--------------|----------------------|
| I. 序 言 | IV. 格物致知論의 同異 |
| II. 理氣論의 同異 | 1. 兩人的 두 가지 중요한 공동점: |
| 1. “太極”과 “理” | 2. 兩人的 두 가지 중요한 상이점 |
| 2. 理氣 | V. 持敬工夫論의 同異 |
| III. 心性論의 同異 | 1. 兩人的 持敬說의 공동점: |
| 1. 心 | 2. 兩人的 持敬說의 상이점: |
| 2. 性 | VI. 結 論 |
| 3. 情 | |

I. 序 言

朱熹(1130~1200)는 중국 南宋시대의 “致廣大, 盡精微, 綜羅百代”¹⁾한 理學巨擘이며, 李滉(1501~1570)은 조선시대의 “주자를 宗主로 삼는” 理學大師이다. 한국에서 주희의 理學은 朱子學이라 칭하고, 이황의 理學은 退溪學이라 칭하고 있다. 퇴계학은 비록 주자학을 계승하였지만 처했던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인은 相同한 가운데 相異함이 있고, 相異한 가운데 또 相同함이 있다.

* 중앙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제14차 퇴계학 국제학술대회(1995) 발표논문

1) 《宋元學案》卷48, 《晦菴學案》

본문에서는 주자와 퇴계의 理學사상의 비교를 통하여 양인의 思想 同異와 그 정신 특질을 밝히고, 宋明 理學의 韓中 양국에 대한 전파와 발전 및 변천 과정을 이해하며, 나아가 한중 양국의 사상 문화의 상이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주자와 퇴계 양인의 理氣論·心性論·格物致知論·持敬工夫論에 대하여 相同點과 相異點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理氣論의 同異

본체론에 있어서 주자와 퇴계는 다같이 理氣論으로 체계를 세우고 있으며, 양인의 同異는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 “太極”과 “理”

1) 양인의 相同點: ‘太極’과 ‘理’는 모두 주자와 퇴계이학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명제이다. ‘太極’은 바로 ‘理’로써 理는 통체적인 太極之理요, 절대보편자이며, 천지만물의 本源이요, 형이상의 道이며, 仁義禮智의 총칭이요, 사물의 所以然과 所當然이다. 이는 주자와 퇴계의 ‘理’개념 범주의 공통적인 함의이다.

2) 양인의 相異點 :

(1) 理의 기능: ① 주자가 말한 理는 조작의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理는 오히려 情意도 없고, 計度도 없으며, 造作도 없다.”²⁾고 여겼다. ② 퇴계는 무조작의 기능을 理의 體로 귀결시키고, 조작의 기능을 理의 用으로 귀결시켰으며, “情意造作이 없는 이것은 理의 本然之體요, 그 의지처의 발현에 따라 이르지 않은 것이 없는 이것은 理의 至神之用이다.”³⁾라고 하였다.

2) 《朱子語類》卷1 《理氣上》《太極天地上》：“理却無情意，無計度，無造作。”

3) 《陶山全書》卷24 《答奇明彥別紙》：“無情意造作者，此理本然之體也；其隨寓

(2) 理의 動靜: ① 주자는 理(太極)자체는 動靜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理는 動靜으로서 말할 수 없다.”⁴⁾고 여겼다. ② 이에 반하여 퇴계는 理나 태극자체는 動靜이 있으며, “태극에 動靜이 있으므로 태극은 스스로 動靜하며, 天命의 流行은 天命이 스스로 流行한 것인데, 어찌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가?”⁵⁾라고 여겼다. 퇴계가 動靜流行은 태극과 理 자체의 운동이며, 理와 태극을 우주의 創生原理로 본 관점은 濂溪·橫渠·明道가 주장한 理가 존재하면서 활동한다는 活理로서의 창조성과 실체성을 긍정한 것이다.

2. 理氣

주자와 퇴계는 모두 천지만물은 理와 氣로써 구성된 것이라고 여겼다. 天理의 流行은 만물을 造化發育시키므로 인물의 탄생도 반드시 이 理를 稟受한 뒤에야 이 性이 있게 되고, 이 氣를 품수한 뒤에야 형상이 있게 된다고 보았다.

1) 양인의 共同點 :

(1) 理氣先後: 그 本源을 논한다면 理는 氣보다 먼저 있다고 보았다. ① 주자는 “理가 있는 뒤에 氣가 있다.”⁶⁾고 하였다. ② 퇴계도 “(理氣) 스스로 先後處가 있다고 한다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다.”⁷⁾고 하였다.

(2) 理氣本末: 그 본말을 논한다면 理는 本이요, 氣는 末이라고 보았다. ① 주자는 “이 理가 있으면 곧 이 氣가 있다. 그러나 理는 本이다.”⁸⁾고 하였다. ② 퇴계 역시 “精과 本은 太極이요, 粗와 末은 陰陽이다.”⁹⁾고 하였다.

發現而無不到者, 此理至神之用也.”

4) 《朱子語類》卷74 《易》10 《繫辭上之上》: “理不可以動靜言.”

5) 《增補退溪全書》1 券13《答李達李天機》: “太極之有動靜, 太極自動靜也; 天命之流行, 天命自流行也, 豈復有使之者歟?”

6) 《朱子語類》卷1 《理氣上》《太極天地上》: “有是理然後有是氣.”

7) 《陶山全書》2 券44《答禹景善問目》: “(理氣)自有先後處言, 則固如此.”

8) 《朱子語類》卷1 《理氣上》《太極天地上》: “有是理便有是氣, 但理是本.”

9) 《退溪全書》4 《言行通錄》卷5《類》: “精與本, 太極也; 粗與末, 陰陽也.”

2) 양인의 相異點 :

(1) 理氣의 一物·二物 문제: ① 주자는 비록 “이른바 理와 氣는 절대 二物”¹⁰⁾이라고 하였으나, “物에서 본다면, 二物은 渾淪하므로 분리해서 따로 놓아서는 안된다.”¹¹⁾고 강조하고, 理氣는 不相離하고 또 不相雜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퇴계는 ‘理氣二分’을 돌출시켜 “理는 끝내 氣와 섞이지(雜)도 아니하고, 기를 떠나지(離)도 아니하며”, “그것이 나누어져도 서로 어지럽혀서 그 구별이 없게 해서 안된다.”¹²⁾고 강조하고, 아울러 주자의 “理와 氣는 절대 二物이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理氣를 ‘混爲一物’이라는 주장도 반대하고, ‘判爲二物’¹³⁾이라는 주장도 반대하였다.

(2) 理氣動靜: ① 주자의 理氣動靜 문제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氣에는 動靜이 있으나, 理에는 動靜이 없다.”, “理는 氣를 타고서 動靜한다.”¹⁴⁾고 여긴 점이다. ② 퇴계는 주자의 “理에는 動靜이 있기 때문에 氣에도 動靜이 있다. 만일 理에 動靜이 없다면 氣는 어떻게 스스로 動靜이 있겠는가?”라는 주장을 제기하여 “대개 理가 動하면 氣는 따라서 발생하고, 氣가 動하면 理도 따라서 드러난다.”¹⁵⁾고 말하고, 본체의 ‘理’에는 “能發能生할 수 있는 至妙의 작용”¹⁶⁾이 있고, “理에는 靜은 있으나 動이 없는 것이 아니며, 氣역시 靜은 없으나 動이 있는 것이 아니다.”¹⁷⁾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理와 氣는 모두 動과 靜의 통일을 말하고 있다.

10) 《朱文公文集》卷46 〈答劉叔文〉: “所謂理與氣, 此決是二物.”

11) 上同: “在物上看, 則二物渾淪, 不可分割分開各在一處.”

12) 《退溪全書》卷8 《天命圖說》: “理終不雜於氣, 而亦不離氣.”; “分則亦不可相紊而無其別也.”

13) 《退溪全書》4 〈退溪先生言行通錄〉: “不分而言, 則混爲一物而不知其不相雜也; 不合而言, 則判爲二物而知其不相離也.”

14) 《朱子語類》卷94: “氣有動靜, 理無動靜”, “理搭氣而動靜.”

15) 《陶山全書》2卷 34〈答鄭子中別紙〉: 朱子嘗曰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氣何自而有動靜乎?”, “蓋理動則氣隨而生, 氣動則理隨而顯.”

16) 《陶山全書》3卷 55〈答李公浩問目〉: “能發能生至妙之用.”

17) 《陶山全書》3卷 59〈靜齋記〉: “理非靜有而動無, 氣亦非靜無而動有.”

3) 理貴氣賤 : ① 주자는 理氣의 가치 문제를 특별히 관계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② 그러나 퇴계는 理氣를 가치화하여 ‘理貴氣賤’설을 제기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한 몸은 理氣를 겸비하고 있는데 理는 귀하고 氣는賤하다.”¹⁸⁾고 하여 理의 가치를 절대화하였다.

4) 理生氣: ① 주자의 ‘理生氣’¹⁹⁾는 理에 依傍해야만 心氣의 절도에 맞는 生化(行)를 표현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이 설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② 퇴계는 명확하게 ‘理能生氣’를 긍정하고서, “濂溪가 ‘太極이動하면 陽을 生한다.’고 말한 것은 理가 動하면 氣가 生한 것을 말한 것이다.”²⁰⁾고 하였다. “虛가 능히 氣를 生할 수 있는 虛이니, 理字로 보아도 해될 것이 없다.”²¹⁾고 하여 理의 발생과 원리를 강조하였다.

상술한 주자와 퇴계의 理氣觀의 同異가 표명하고 있는 바는 퇴계학은 주자학의 理氣論을 계승한 기반 위에서 그 내재적 모순에 대해서 하나 하나 논리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이론상으로 理氣論의 내재적 모순을 해소하여 理氣論을 더욱 完善하게 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Ⅲ. 心性論의 同異

심성론 역시 주자와 퇴계 理學사상의 핵심 내용이다. 양인은 다같이 ‘心統性情’설을 주장하고 心·性·情 三分의 이론 체계를 세웠으나, 양인은 또 同異點을 지니고 있다.

1. 心

주자와 퇴계는 心を 논함에 있어서는 다같이 知覺義를 지니고 있었

18) 《李退溪集》卷12 《與朴澤之》：“人之一身，理氣兼備，理貴氣賤。”

19) 引自 《元公周先生濂溪集》卷2：“理生氣”

20) 《陶山全書》2 《答鄭子中別紙》：“濂溪云：‘太極動而生陽’，是言理動而氣生也。”

21) 《退溪全書》4卷 《答鄭子中·別紙》：“虛能生氣之虛，若作理字看，則無害。”

다.

1) 양인의 共同點

(1) 知覺義: ① 주자는 “心이란 사람의 지각으로 몸을 주재하면서 사물에 대응하는 것이다.”²²⁾고 하였다. ② 퇴계 역시 心에는 저절로 ‘虛靈知覺之妙’²³⁾가 있다고 여겼다.

(2) 人心·道心: 양인은 다같이 心을 ‘人心’과 ‘道心’으로 구분하였는데, ① 주자는 “이 心之靈이 理에서 깨닫는 것은 道心이요, 欲에서 깨닫는 것은 人心이다.”²⁴⁾고 하였다. ② 퇴계 역시 “人欲을 억제하는 일은 마땅히 人心 쪽에 속하며, 天理를 보존하는 일은 마땅히 道心 쪽에 속한다.”²⁵⁾고 하였다.

2) 양인의 相異點: 心의 虛靈知覺의 근원에 대한 관점

(1) 虛靈知覺: ① 주자는 人心은 虛靈하므로 “知覺은 바로 氣의 虛靈處이며”,²⁶⁾ “능히 覺할 수 있는 것은 氣의 靈이다.”²⁷⁾고 여겼으니, 즉 ‘心’의 虛靈知覺은 ‘氣’의 功能이라고 본 것이다. ② 그러나 퇴계는 “理氣가 합하여 心이 된다”는 설에 의하여 “靈은 본래 氣이다, 그러나 氣는 편안하며 능히 스스로 靈함으로써 理와 합할 수 있기때문에 능히 靈할 수 있다.”²⁸⁾고 하였다. 이 점은 心之靈을 ‘理氣合’으로 귀결시킨 결과이다. 이는 확실히 퇴계가 理에 능동성이 있다고 주장한 논리적인 확대요,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22) 《朱文公文集》卷65 《大禹謨解》「人心惟危，道心惟微」註釋：“心者人之知覺，主於身而應事物者也。”

23) 《陶山全書》3卷 3〈答奇彥明·別紙〉：“理氣合而爲心，自然有虛靈知覺之妙”

24) 《朱文公文集》卷56 《答鄭子上》：“此心之靈，其覺於理者，道心也；其覺於欲者，人心也。”

25) 《陶山全書》3卷 53〈答李平叔〉：“凡遏人欲事，當屬人心一邊；存天理事，當屬道心一邊。”

26) 《朱文公文集》卷61 《答林德久》：“知覺正是氣之虛靈處。”

27) 《朱子語類》卷5《性理2》《性情心意等名義》：“能覺者，氣之靈也。”

28) 《退溪全書》5 《李子粹語》1：“靈固氣也，然氣安能自靈，緣與理合，所以能靈。”

2. 性

주자와 퇴계는 性を 논함에 있어서는 다같이 ‘性卽理’설을 주장하였다.

1) 양인의 相同點 :

(1) 性卽理: ① 주자는 “程子が 性卽理라고 한 이 말이 가장 훌륭하다.”²⁹⁾고 하였고, ② 퇴계 역시 性是 “단지 心중에 갖추고 있는 理일 뿐이다.”³⁰⁾고 하였다. 양인은 똑같이 理氣로써 性を 말하였으며, 性を 天命之性和 氣質之性으로 구분하였다.

(2) 天命之性和 氣質之性: ① 주자는 “氣質之性은 있으나 天命之性이 없으면 역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으며, 天命之性은 있으나 氣質之性이 없으면 역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³¹⁾고 하였다. ② 퇴계 역시 性에는 本然之性和 氣稟之性の 구분이 있는데 “子思·孟子는 本然之性을 가리킨 것 같고, 程子·張子는 氣質之性을 가리킨 것 같다.”³²⁾고 하였다.

2) 양인의 相異點:

(1) 주자는 비록 ‘理氣言性’을 주장하였으나, 아직 天命之性和 氣質之性을 理氣에 분속시키지 않고 “天地之性을 논한다면 오로지 理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氣質之性을 논한다면 오로지 理氣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³³⁾고 하였다.

(2) 퇴계는 性是 “理氣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天地之性은 본래 오로지 理를 가리키며… 氣質之性은 비록 理氣와 섞여 있다고 해도 설마 氣를 가리켜서 말할 수 없다.”³⁴⁾고 하였으니, 이는 天

29) 《朱子語類》卷4《性理1》《人物之性氣質之性》：“程子性卽理也，此說最好。”

30) 《陶山全書》2卷 41 《答金而精》：“只是心中所具之理。”

31) 《朱子語類》卷4《性理1》《人物之性氣質之性》：“有氣質之性，無天命之性，亦做人不得；有天命之性，無氣質之性，亦做人不得。”

32) 《陶山全書》2卷 22 《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思·孟猶指出本然之性，程·張猶指論氣質之性。”

33) 《朱文公文集》卷56 《答鄭子上》：“論天地之性則是專指理言，論氣質之性則以理氣雜而言之。”

34) 《陶山全書》2卷 22《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天地之性固專指理…氣質

地之性和 氣質之性을 理氣에 분속시킨 것이다.

3. 情

주자와 퇴계는 情을 논함에 있어서는 다같이 “性體情用”의 설을 주장하였다.

1) 양인의 共同點:

(1) 주자는 “性是體요, 情은 用이다.”³⁵⁾고 하여 性·情을 體·用으로 구분하였다.

(2) 퇴계도 “성이 發하면 情이 된다.”³⁶⁾고 하여 性和 情을 體用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2) 양인의 相異點:

(1) 주자는 일찍이 “사단은 理之發이요, 칠정은 氣之發이다.”³⁷⁾고 말하였으나, 결코 情과 理氣의 관계를 들추어내지는 않았다.

(2) 퇴계는 “사단은 理之發이요, 칠정은 氣之發이다.”³⁸⁾라거나, 또는 “사단은 理가 發하나 氣가 이를 따르고, 칠정은 氣가 發하나 理가 이를 타게 된다.”³⁹⁾고 강력히 주장하여 情을 사단·칠정으로 구분하고, 아울러 사단·칠정을 理氣에 분속시킴으로써 情의 선악 문제를 해석하였다.

상술한 주자와 퇴계의 심성론의 同異는 퇴계는 理氣의 구분을 뚜렷하게 드러냄으로써 理氣를 가지고 心·性·情을 말하고, 아울러 天地之性和 氣質之性, 사단과 칠정을 理氣에 분속시켜서 이론상의 일관성과 정밀성을 유지하였다.

之性雖雜理氣, 寧不可指氣而言之乎?”

35) 《朱子語類》卷98 〈張子之書〉: “性是體, 情是用.”

36) 《退溪全書》卷9 《進聖學十圖筭》〈心統性情圖說〉: “性發爲情”

37) 《朱子語類》〈孟子三〉〈公子紐上之上〉〈人皆有 不忍人之心章〉: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

38) 《陶山全書》1卷 21 〈答寄彥明論四端七情第一書〉: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

39) 《退溪全書續內集》卷51 〈答李宏仲問目〉: “四端理發而寄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IV. 格物致知論의 同異

주자와 퇴계는 다같이 格物致知를 工夫論으로 삼았다. 퇴계는 주자의 格物致知論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1. 양인의 두 가지 중요한 共同點:

1) 格物窮理說: ① 주자는 ‘格’을 ‘至’이라고訓하였으니, “格은 至이며, 物은 事와 같다. 事物之理를 궁구하여 그 極處에 이르지 않음이 없게 한다.”⁴⁰⁾고 하면서 卽事卽物의 窮理를 강조하였다. 또 格物의 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하여 “一念의 微微함으로부터 事事物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窮格의 대상으로 보았다. ② 퇴계도 ‘格’을 ‘窮而至之’⁴¹⁾라고訓하였으니, 일체 사물은 모두 窮格의 범위 내에 있어서 “대개 格物이 致知하는 까닭은 물론 物이 格하지 않음이 없으니, 性情身心으로부터 모두 깨닫고 있다.”⁴²⁾고 하였다.

2) 豁然貫通說: ① 주자는 格物致知는 점진적인 축적으로부터 豁然貫通을 제창하면서 “積習이 오래되면 스스로 脫然히 貫通處가 있게 된다.”⁴³⁾고 하였다. ② 퇴계 역시 “오랫동안 쌓이고 공부가 익숙하여지면 자연히 脫然貫通處가 있게 된다.”⁴⁴⁾고 하였다.

2. 양인의 두 가지 중요한 相異點

1) ‘心到’說과 ‘理到’說: ① 주자는 “대개 인심의 靈은 알지 못함이 없

40) 《大學章句》釋經一章: “格, 至也. 物, 猶事也. 窮致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

41) 《退溪全書》2 《格物物格俗說辨疑言鄭子中》: “格學有窮而至之義.”

42) 《陶山全書》2卷 25《答黃仲舉論白鹿洞規集解》: “蓋格物所以致知, 當無物不格, 自性情身心, 皆在理會.”

43) 《朱子語類》卷18 〈大學五〉〈或問下〉: “積習既久, 自當脫然有貫通處.”

44) 《陶山全書》2卷 25《答黃仲舉論白鹿洞規集解》: “積久功熟, 自然有脫然貫通處.”

으며, 천하의 物은 理가 있지 않음이 없다. 오직 理에 窮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 知에 다하지 않음이 있게 된다. 때문에 大學의 始敎는 반드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릇 天下之物은 그 已知之理로 인하여 더욱 궁구하여 그 終極에 도달함을 구하지 않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 用力한 지가 오래 되어 일단 豁然貫通하게 되면 衆物의 表裡精粗가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吾心の 全體大用이 밝혀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⁴⁵⁾고 하였다. 주자의 窮理說은 心으로부터 物에 이르고, 主觀으로부터 客觀에 이르니 ‘心到’설이라고 하겠다. ② 퇴계는 理之用은 “비록 人心에 지나지 않으나, 그 用之妙가 되는 까닭은 사실 理의 發現者는 人心의 이르는 바에 따라 이르지 않음이 없고, 다하지 않음이 없다. 다만 나의 格物이 아직 이르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할 뿐, 理가 스스로 이르지 못할까 근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야흐로 그 格物이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내가 物理의 지극한 곳까지 窮至한다는 말이며, 그 物格이라고 한 것이 어찌 物理의 지극한 곳에 나의 궁구에 따라서 도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⁴⁶⁾라고 하여 ‘物格’은 人心의 궁구 아래에 있어서 物로 부터 心에, 客觀으로 부터 主觀에 이르고, 더욱 ‘理’가 스스로 이른 “自到”이니, 이는 ‘理到’설이라고 하겠다.

2) 知行說: ① 주자는 ‘知先行後’, ‘知輕行重’ 및 ‘知行相順’를 주장하고, “(知行은) 선후를 논하면, 知가 先이요, 輕重을 논한다면 行이 重하다.”, “知行은 항상 相順하니, 예컨대 눈(目)에 발(足)이 없으면 다닐 수 없고, 발에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⁴⁷⁾고 하였다. ② 퇴계는 知

45) 《大學章句》〈補格物致知章〉: “蓋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惟於理有未窮, 故其知有不盡也. 是以大學始敎, 必使學者即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 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裡精粗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

46) 《陶山全書》2卷 18《答奇明彥·別紙》: “雖不外乎人心, 而其所以爲用之妙, 實是理之發見者 隨人心所至而無所不到, 無所不盡. 但恐吾之格物有未至, 不患理不能自到也. 然則方其言格物也, 則是我窮至物理之極處; 及其言物格也, 則豈不可謂物理之極處, 隨吾所窮而無不到乎!”

47) 《朱子語類》卷9: “(知行)論先後, 知爲先; 論輕重, 行爲重”; “知行常相順, 如

行은 서로 선후가 되고, 서로 輕重이며, 서로 바탕이 되어 앞으로 나감을 주장하고, “제 생각에 知行 두가지는 兩輪兩翼과 같아 서로 선후가 되고, 서로 輕重이 된다.”⁴⁸⁾고 하고, “眞知와 실천은 수레의 兩輪 같아서 하나도 빠져서는 안되며, 사람의 두 다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과 같다.”⁴⁹⁾고 하였다. 퇴계는 이처럼 주자의 知行說에 대하여 수정과 발전을 가하였다.

상술한 주자와 퇴계의 格物致知論의 同異에서는 퇴계는 주자의 格物致知論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주자의 知行學說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였다.

V. 持敬工夫論의 同異

주자와 퇴계의 이른바 공부는 知識과 德性 양면의 함양을 포괄하여 程子の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를 주장하였다. 지식의 함양은 格物致知의 공부에 의거하며, 덕성의 함양은 格物致知의 공부외에 특별히 ‘敬’의 공부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주자와 퇴계는 다같이 ‘持敬’설을 주장하였다.

1. 양인의 持敬說의 共同點:

1) ‘持敬’은 ‘入道’의 유일한 途徑: ① 주자는 “聖門之學은 별도의 묘한 것이 없다. 칠두칠미하며 오직 하나의 敬字일 뿐이다…만일 능히 持敬으로 궁리할 수 있다면 天理는 스스로 밝혀지고, 人欲은 스스로 없어진다.”⁵⁰⁾고 하였다. ② 퇴계 역시 “道는 넓고 넓어서, 학자들은 그 문에

目無足不行, 足無目不見.”

48) 《退溪全書》1卷 21 《答李剛而問目》: “竊意知行二者, 如兩輪兩翼, 互爲先後, 相爲輕重.”

49) 《退溪全書》1卷 45 《戊辰六條疏》: “眞知與實踐, 如車兩輪, 闕一不可, 如人兩脚相待互進.”

들어가기 어렵다. 程朱의 홍성은 居敬窮理라는 두 마디로 만세에 큰 교훈을 세웠다.”⁵¹⁾고 하였다.

2) 靜養動察, 敬貫動靜: ① 주자는 “君子는 敬에 대해서 역시 動靜語默간에 그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 (심성의)未發시에는 이 敬은 진실로 存養之實의 주체이며, 已發시에는 이 敬은 또 항상 성찰하는 사이에 작용하여 바로 보존한다.”⁵²⁾고 하였다. ② 퇴계 역시 “오직 主敬의 공부만이 動靜을 通貫하여 거의 用工에 부족하지 않다.”⁵³⁾고 하였다.

2. 양인의 持敬說의 相異點:

1) 敬學: ① 주자는 단지 ‘敬’字만을 말했을 뿐, 일찍이 이른바 ‘敬學’의 명칭이 없었다. ② 퇴계는 ‘敬’을 ‘敬學’으로 제고하여 말하길: “때문에 君子之學은 이 心이 未發시에는 반드시 敬을 위주로 하여 存養工夫를 가해야 하며, 이 心이 已發시에도 반드시 敬을 위주로 하여 省察工夫를 가해야 한다. 이것이 敬學이 始終의 되어 體用을 通貫하는 까닭이다.”⁵⁴⁾라고 하였다.

2) 心法: ① 퇴계는 敬을 논하면서 특별히 ‘心法’을 표방하여 말하길: “학자는 진실로 한결같이 持敬을 할 수 있어 理欲에 어둡지 않고 더욱 여기에 부지런히 한다면, 未發시에도 存養之功은 깊어지고 已發시에도 省察之習이 익숙하여, 진정 積力이 오래되어 멈추지 않는다면, 이른바

50) 《朱文公文集》卷41 : “聖門之學, 別無要妙, 徹頭徹尾, 只是個敬字而已…若能持敬以窮理, 則天理自明, 人欲自消.”

51) 《退溪全書》1 《與朴澤之》: “道之浩浩, 學者難得其門而入. 程朱之興, 以居敬窮理兩言爲萬世立大訓.”

52) 《朱文公文集》卷32 《答張欽夫》: “君子於敬, 亦無動靜語默而不用其力焉. 未發之前, 是敬也固已立於存養之實; 已發之際, 是敬也又常行乎省察之間.”

53) 《退溪全書》1卷 14《答李叔獻·別紙》: “惟主敬之功, 通貫動靜, 庶幾不差於用功爾.”

54) 《退溪全書續集》卷8 《天命圖說》: “是以君子之學, 當此心未發之時, 必主於敬而加存養工夫; 當此心已發之際, 亦必主於敬而加省察工夫. 此敬學之所以成始終而通貫體用者也.”

精一執中の 聖學과 存體應用的 心法은 모두 밖에서 구하여 여기에서 터득함을 기다리지 않는다.”⁵⁵⁾고 하였다. 持敬工夫로써 未發·已發의 시종을 관통하며, 未發시의 존양과 已發시의 성찰은 理欲에 어둡지 않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心法’의 요결이다.

상술한 持敬工夫論의 同異는 퇴계는 주자의 ‘持敬’공부설의 기초 위에서 ‘敬學’을 제시하고, ‘心法’을 표방하였으니, 주자와 비교하여 보면 持敬工夫論에 있어서는 더욱 縝密함을 알 수 있다.

VI. 結 論

이상의 辨析을 통하여 우리는 주자와 퇴계가 다른 시대와 환경에 살았던 이유로 인해서, 16세기 한국의 퇴계학은 실제 12세기 중국의 주자학보다 이론상으로는나 실천상으로 큰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理學 思想에 있어서 양인의 相同點은 한중양국의 전통문화의 공동정신을 반영하였고, 양인의 相異點은 한중양국의 전통문화의 변화와 상이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주자학과 퇴계학의 同異는 한중양국 학자들이 공동 노력으로 東洋문화의 弘揚과 창조를 계발함과 동시에 상이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 세계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토록 해야 할 것이다.

55) 《退溪全書》卷7 《進聖學十圖筭》〈茅之心絃性情圖設〉：“學者誠能一於持敬，不味理欲，而尤致謹於此，未發而存養之功深，已發而省察之習熟，眞積力久而不已焉，則所謂精一執中之聖學，存體應用之心法，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